

찬미 기도회

Prayers Meeting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위원회
www.kscusa.org



찬미 기도회의 목적

하느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신다.

찬미 기도회의 순서

1. 찬미성가
2. 시작기도 (사회자), 봉헌기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또는 자유기도
3. 찬미 성가와 찬미 기도 (자유 기도)
4. 찬미 성가와 심령 기도
5. 찬미 성가와 찬미 기도 (자유기도)
6. 찬미 성가, 심령 기도와 예언 말씀 - 심령 기도 후 침묵 중에 주시는 예언 말씀을 듣는 시간
*사회자: 말씀이 끝난 후 주신 말씀들을 요약하고 감사기도를 한다.
*회중: 아멘 으로 응답한다.
7. 가르침 시간 - 성서 묵상 (또는 그날의 예언 말씀에 따른 묵상)
8. 나눔의 시간
9. 찬미 성가와 특별 기도 (청원 기도 또는 치유의 시간) - 공동체나 개인을 위한 청원 기도, 기도 공동체가 함께 하는 치유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
10. 마침 성가 - 성가 하며 봉헌 주머니 돌리기
마침 기도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신부님의 강복

*찬미 기도회가 끝난 후 사랑의 인사 교환

*기도회의 시간 - 1시간 반 내지 2시간

*친교의 시간 - 30분 정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지금부터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두움의 권세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온갖 악을 추방하고, 저를 악으로 유인하는 온갖 것들을 피할 결심이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는 예수님께 제 모든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 기도

예수님의 어머니요, 자비의 어머니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 당신을 저희 어머니로 주셨기에 저는 당신을 내 어머니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당신에게 맡기셨으니 저희는 당신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성부께 순종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의탁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저희도 사랑으로 주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모상, 나의 어머니 마리아님!

성부께서는 당신께 성자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 자신과 제가 행한 바 모든 일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더욱 완전히 아버지께 봉헌하도록 저를 도와 주소서. 그리고 저를 십자가와 이층 방 성교회로 깊숙이 이끌어 주소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런 현존가운데 저의 심령도 그분의 왕좌가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 아멘

심령기도와 심령노래

우리는 보통 성령 안에서 세례를 위한 안수기도를 받을 때 심령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회에서 더욱 심령기도에 개방 된다. 심령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와 지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체험시켜 준다. 그래서 기도회에서는 모두 함께 심령기도 또는 심령 노래/ 영가를 합송한다.

심령기도는 심령 언어/ 영언 또는 다른 성령의 은사와 달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은사이며, 여러가지 봉사 은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입문적 은사이다.

심령 기도는 이성 기도나 묵상 기도가 아니며, 즉각적으로 관상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 내는 관상 기도>라고도 말한다. 심령 기도는 심령 언어/ 영언과는 달리 단순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흠송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기도회는 반드시 심령기도와 심령 노래/ 영가를 열렬하게 합송한다. 심령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어지고 다른 은사의 현현도 자주 일어남을 본다. 그래서 기도회를 <은사 기도회> 또는 <찬미 기도회> 라고 부르게 된다. 그간 <성령 기도회>라 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다.

심령 언어/ 영언과 예언 말씀

우리는 심령 기도 또는 심령 노래와 구분되는 심령 언어/ 영언의 은사 현현도 본다.

우리는 심령 언어/ 영언의 은사가 현현되는 경우 이를 우리 말로 현현되는 예언 말씀과 구분하여 심령 예언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우리 말로 해석해 주는 해석의 은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 고린토 14: 5)

그런데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심령 기도나 심령 노래와 함께 심령 언어 또는 예언 말씀은 하나님과 통교/ 대화하는 기본 은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의 감도 안에서 우리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통교/ 대화의 상응 원리를 경험,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또는 기도회에서 함께 심령 기도나 심령 노래를 충분히 현현한 후에 항상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심령 기도나 심령 노래가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듯, 예언 말씀 또는 심령 예언도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 은사의 확장을 의미한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개요

소개 강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신앙 생활의 쇄신, 공동체의 쇄신 - 은사적으로 쇄신한다.

하느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돌아온 탕자 처럼 성령을 통해 아버지 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다.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령을 통해 나의 개인적 사건이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새 생명: 성령강림으로 세상을 복음화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안에 일어난다, 각 개인의 생활 속에 성령의 지속적인 현존이 있게 된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인식한다.

성령 세례: 성령강림의 재현을 위한 안수기도, 성령 안에서의 세례/잠김, 성령은사의 현현이다.

성장: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 - 숨결 같은 기도, 성서말씀에 맞들임, 성사와 전례생활에의 자발적 참여, 영적양식이 되는 독서, 사랑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은사적으로 봉사한다.

변화: 부르심에 대한 소명, 증인의 사역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화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전환 된다.